Ten-panel Folding Screen of the Seven Jeweled Mountain

조선, 19세기 비단에 수묵담채 185.2×460.0cm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이 병풍 그림은 함경북도 명천에 있는 칠보산 일대의 풍경을 그린 실경산수화이다. 19세기에 유행한 연폭의 대형 병풍 으로 제작되었으며, 칠보산의 기암괴석, 봉우리, 계곡 등 경관 을 화면 가득 담아냈다. 개심사開心寺, 회상대會象臺, 금강굴 金剛窟 등 봉우리와 바위 곳곳에 적혀 있는 이름을 통해 칠보산 의 명소를 확인할 수 있다.

This ten-panel folding screen is a true view landscape painting that depicts the Seven Jeweled Mountain located in the Hamgyeong province. It was produced as a large folding screen with joint panels, which was popular in the 19th century. It captures the mountain's unique rocks, peaks and valleys in a panoramic view. The names written on peaks and rocks help viewers identify each scenic spot.



산 강 을

거닐다

2024.

3.15.

5.26.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



국립고궁박물관과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 특별전은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칠보산도병풍七寶山圖屛風》의 디지털 영상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외국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진행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국외의 한국 문화유산을 디지털 영상 전시로 활용한 첫 사례입니다.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칠보산도병풍》은 함경북도 명천에 있는 칠보산의 절경을 10폭의 화면에 담은 조선 후기 실경산수화 입니다. 함경도 회령부會寧府 판관判官이었던 임형수林亨秀 (1514~1547)는 1542년 3월에 칠보산을 유람한 뒤 「유칠보산기 遊七寶山記」라는 여행기를 남겼고, 이후 칠보산은 북관(지금의 함경도)의 명승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여러분은 480여 년 전 임형수의 발길을 따라가며 칠보산의 다양한 경승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 내리는 중에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임형수의 깊은 감동을 《칠보산도병풍》 영상 콘텐츠를 통해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쉽게 만날 수 없는 외국의 우리 문화유산을 보다 가까이 향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금강. 칠보산의 주요 명승지

The Main Scenic Views of the Seven Jeweled Mountain







사악 Sa-am Boulder

바위가 절과 닮고 또 커서 사암이라고 하는데

굴에서는 폭포가 흘러내리고 아래에는 깊게 파인 못이 있는데 속세의 자취가 닿지 않은 듯했다.







회상대Hoesangdae

나는 산의 모든 형상을 볼 수 있는 이곳을 "삼라만상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회상대會象臺'라 이름 지었다.



천불봉Cheonbulbong Peaks

옥돌이 천 길이나 되어 층층이 우뚝 솟았는데 너무나도 괴이하여 사람이 손으로 조각한다 한들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개심사 Gaesimsa Temple

고찰에 스님은 어디 가셨나, 황량한 뜨락엔 해가 서쪽으로 저문다. 목어는 바람에 저절로 울고 산새는 해 저물어 둥지로 돌아온다.





"Into the Seven Jeweled Mountain" is held simultaneously at the Cleveland Museum of Ar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o display the digital images of "Seven Jeweled Mountain," a ten-panel folding screen housed in the renowned American museum.

This exhibition marks the first case wher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nd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present Korea's overseas cultural heritage in an immersive digital exhibition.

is a true-view landscape painting of the Seven Jeweled Mountain in Northern Hamgyeong Province.

ngbu, Hamgyeong Province, wrote journals on his tour of the mountain in March 1542. Later, the mountain became a scenic spot for Hamgyeong Province.

This immersive, large-scale projection of the legendary scenery provides you with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diverse scenic views of the Seven Jeweled Mountain while following in Im Hyeong-su's footsteps 480 years ago.

We hope that this exhibition helps you more closely enjoy Korea's overseas cultural heritage that you cannot easily













